

##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한국 성인 여성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 혜 지\*

강 영 신\*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 참여자들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한 종류인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고, 청소년기에 어머니를 사별한 성인 여성 16명에게 일대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Strauss와 Corbin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241개의 개념, 76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축코딩의 패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엄마의 죽음 인지', '사별 직후 정서' 2개, 중심현상은 '모사별로 인한 일상의 애환과 고충' 등 3개, 맥락적 조건은 '시간에 따른 정서의 변화' 등 4개, 중재적 조건은 '지지체계의 위로와 도움을 받음', '애도의 장애물' 등 3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개인적 애도 방식', '대처방식 마련' 2개, 결과로는 '심리적 성장'으로 구성되었다. 축코딩의 과정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혼란 단계', '버티기 단계', '부딪히기와 지속적 연결 시도 단계', '재구성 단계', '회복 단계', '성장 단계'의 6단계로 구성되었다. 선택코딩에서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사별한 엄마를 심고 나를 키워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선택코딩 과정에서 드러나는 참여자들의 애도와 심리적 성장 경험을 개인수준, 대인관계수준, 사회수준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상황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기 사별경험, 성인 여성, 애도 과정, 심리적 성장, 근거이론

\* 본 연구는 이혜지(2019)의 박사학위논문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한국 성인 여성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의 일부를 요약,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제1저자: 이혜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사회과학대학 260

Tel: 062-530-2650, E-mail: hejip413@gmail.com

‡ 교신저자: 강영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사회과학대학 260

Tel: 062-530-2652, E-mail: lavieenrose@jnu.ac.kr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평생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마주해야 한다. 특히 삶에서 애착을 가장 많이 형성한 가족원의 죽음으로 인한 관계 단절은 신체적 및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이선이, 1995; Holland & Neimeyer, 2011). 애착 대상의 물리적인 존재, 대상과의 물리적 근접성은 안전감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가족원의 죽음은 물리적 근접성의 상실감을 유발하고(Field, Gao, & Paderna, 2005), 이는 애정의 재확인인 더 이상 안 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만한 심리적 자원까지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과 같다.

사별의 현실을 수용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사별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사별의 현실을 수용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별의 슬픔을 경험하며 수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용 이후 고인과의 내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애도 작업(grief work)을 하는데(Kastenbaum, 2007), 애도 작업을 한다는 것은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 자신의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의미이다(Worden, 2009). 이에 따라 자신의 슬픔을 직면할 수 있도록 '슬픔 속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부적응적 애도 상태에 머무르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Currier, Holland & Neimeyer, 2012). 애도 기간이 매우 길어 일상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해 오랫동안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Prigerson, Vanderwerker, & Maciejewski, 2008).

상실에 대한 경험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애도 반응은 종류와 정도에 있어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부모와 사별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애도 반응은 매우 강렬하다. 발달학상 자녀보다 부모가 고령화와 질병의 문제로 먼저 사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나, 출생의 순간부터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애착을 형성한 대상을 학령기, 청소년기에 상실하는 것은 다른 또래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건이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죽음 이후 수년간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및 정신의학적 문제의 위험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들은 수면 장애, 위통,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Murphy, Johnson, & Logan, 2002). 또한 부모의 죽음을 자신 또는 타인 때문이라고 지각하며 비난하고, 부모를 떠나가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사별 대상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워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는 자살 행동을 시도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Gray, Weller, Fristad, & Weller, 2011). 황미현(1999)은 부모사별 아동·청소년 자녀에게 동작성 가족화 검사를 실시하고 연구하였는데, 대부분 남은 가족원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며 높은 수준의 불안 및 분열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반응들을 미루어 볼 때,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사별을 시작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힘들고 버거운 애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애도와 관련하여 성차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청소년기에 아들이 부모와 사별하는 것보다 딸이 어머니와 사별할 때 심리적 어려

움을 더욱 높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Carver, Hayslip, Gilley, & Watts, 2014; Marks, Jun, & Song, 2007). 이는 여학생이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성향이 높고(Palladino-Schultheiss & Blustein, 1994), 따라서 가정에서 경험한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최근에는 어머니와 딸의 특수한 유대관계를 일관적으로 조명한 연구들이 보고된다. 즉 어머니와 딸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연락도 자주하며, 물리적 및 도구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어머니-딸 관계는 질적으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Leopold & Lechner, 2015; Notman, 2006). 어머니와 일찍이 사별한 기혼 여성들은 처음 맞닥뜨리는 양육과 보살핌의 과제들을 압도적이고 어렵다고 지각하여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사별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모성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훨씬 낮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인다고 보고된바 있다(Mireault, Thomas, & Bearor, 200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발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편하고 신뢰되는 안내를 받을 수 없고, '여성됨'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은 심리적 상실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상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이나 어머니가 생존하던 시기에 형성한 개인의 가족 역할 또는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보고 외에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실했다고 지각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어머니를 사별한 여성들

이 오랜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사별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고인을 그리워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도를 한다고 밝힌다. 예를 들면,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인이 가치를 두던 추상적 이념이나 행동을 평생 유지하고(Marwit & Klass, 1996), 고인과 대화하듯 혼잣말을 하거나 편지를 쓰는 등의 행동을 하며, 고인을 기리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이혜지, 강영신, 2017; Foster et al., 2011), 살면서 내재화된 고인의 성격을 재현하기도 한다(Russac, Steighner, & Canto, 2002). 이러한 선행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정서 및 신체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의 사별 경험이 성인으로서의 자기 개념, 대인관계, 삶에 대한 관점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사별이 근접한 것이든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것이든 간에, 청소년기 사별경험이 있는 개인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고인을 애도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많은 사별 경험자들이 신체적 및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과 극복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Davis, Wohl, & Verberg, 2007; Rowe & Harman, 2014). 즉, 사별 이후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들에 대처하며 변화된 자기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Bogensperger & Lieger-Schuster, 2014; Gillies & Neimeyer, 2006), 사건과 사건의 영향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며(Linley & Joseph, 2011; Neimeyer, 2000), 사별 대상과의 유대를 지속하거나 재정립하고(Rowe & Harman, 2014; Worden, 2009), 타인과의 관계 향상에 힘

쓰는 과정에서 고군분투하며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을 경험한다는 것이다(Tedeschi & Calhoun, 1996). Tedeschi와 Calhoun(1996)은 외상 후 성장을 높은 스트레스를 극복함으로써 경험하는 개인적 성장 경험이라고 정의한다. 청소년기 어머니 사별 성인 여성들의 심리적 성장에 관한 연구들에서 참여자들은 일련의 애도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변화된 삶에 통합시키려 노력하고, 고인의 생존 시기에 일시적으로라도 유지했던 정서적 친밀감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대인관계, 변화된 삶의 양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Holdsworth, 2007, Rowe & Harman, 2014; Schultz, 2007).

그러나 이러한 사별 및 애도 관련 자료들은 국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정이다. 관련 국내 연구들은 주로 해외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양적 방법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제한적으로나마, 사별을 '이야기'함으로써 치유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예, 박수진, 2016; 장성금, 유영권, 2012).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애도 연구가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친 정서 표현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각에 민감한 분위기, 그리고 정서가가 높은 표현을 하는 것이 회피되거나 위축된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김대동, 2004)과 관련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별 경험자들이 겪는 애도의 고충과 적응 과정을 논의하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질적 방법론을 적용시키고자 할 때는 공동체의 조화와 집단 내 사회적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에 근간을 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최상진, 최인재, 2002)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동시에 정서가가 매우 높은 표현을 한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문화 안에서 사별을 경험한 개인들이 겪는 고충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만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위로받고 싶은 시기를 놓쳐 오랜 시간 애도 감정을 억압하여 불편감과 고통을 경험한다면 그에 따른 개별화된 상담개입을 계획하여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마다 지니는 삶의 형태는 절대 같을 수 없고, 특히 사별과 애도 과정 자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속한 문화의 영향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경험했는가를 살펴보아야 상담현장에서 개인의 적응과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마다 문화 또는 맥락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애도 현상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표출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장성금, 유영권, 2012; Bonanno, 2004),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해 삶의 전환기에는 더욱 심각한 상실감을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풀어내는 애도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풀어내어 애도와 심리적 성장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 참여자들에게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 상황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어머니와

‘엄마’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상실했다고 지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 2)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의 애도 과정은 어떠한가?
- 3)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은 어떤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는가?

## 방 법

### 연구 설계

현재 어머니 사별에 따른 여성들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경험을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는 것을 서론에서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연구들에 더하여 우리나라 사별자들의 구체적인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 이면에 있을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의 영향으로 인한 경험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별에 따른 애도 과정을 온전히 개별화된 면접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여러 참여자들의 구체적 경험 진술을 통해 얻은 원자료, 즉 근거이론의 핵심이 되는 근거를 수집하여 애도와 심리적 성장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 여성들의 애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성장 경험을 면밀하게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근거이론이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과정의 전반적인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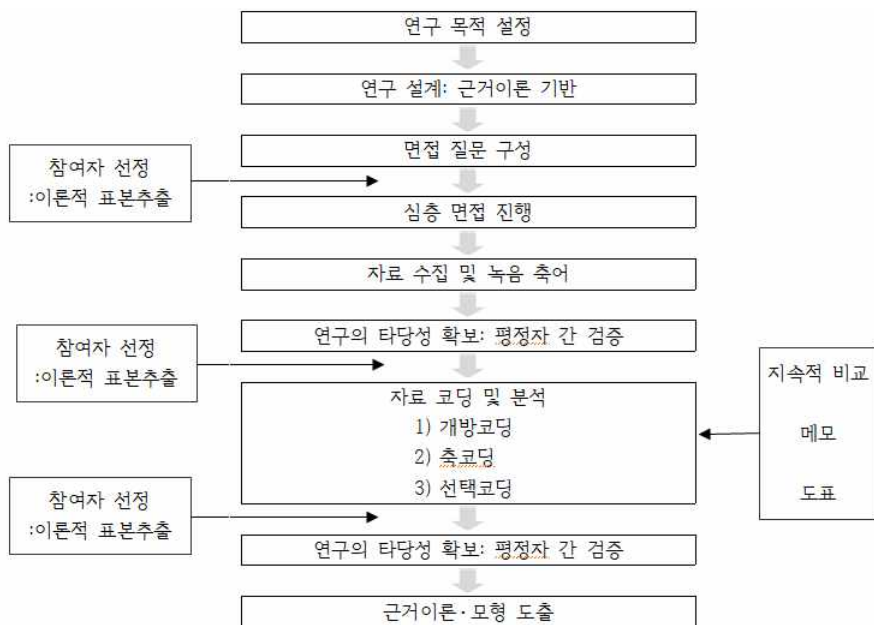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과정에 대한 개요

## 연구참여자

연구 진행에 앞서 가장 먼저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1040198-180118-HR-006-03). 근거이론에서는 연구참여자들과 연구자 간 신뢰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참여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와 관련된 지인을 아는 개인, 또는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초기 참여자들의 소개를 받아 참여자를 모집하는 준거적 선택, 즉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블로그, 카페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한다는 짧은 문장을 게시하는 것, G시 및 Y시 소재 대학교 및 복지기관 내 공고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2)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 성인 여성이다. 모든 참여자가 사전 면접을 통해 자발적이고 개방적으로 면접에 응할 것을 동의하였고, '현재 심리적 안녕감' 점수가 백분위 70점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면접 일정을 협의하고 순서대로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중 9명은 연구자의 지인들의 추천으로 선정되었고, 5명은 여성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한 웹사이트 광고를 보고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6명은 대학교 및 대학병원 공고문을 보고 참여를 신청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사전 면접을 통해 자발적이고 개방적으로 면접에 응할 것을 동의하여 면접 일정을 협의하고 순서대로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개별 심층 면접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총 20명이었으나, 그 중 4명이 어머니의 자살 장면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했던 것이 여전히 외상으로 남아 면접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들은 면접 도중 울음을 터뜨려 연구를 위한 면접은 중단하였고, 주어진 면접 시간을 애도에 관해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어머니의 자살로 인해 여전히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최대한 공감 및 경청하고, 심하게 울거나 숨을 가쁘게 쉬는 참여자의 경우 호흡이완을 시도하였다. 외상적 사별로 인한 애도 과정에 대한 간략한 심리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또한 추후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무료 또는 유료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소개하고 연락처를 전달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상담기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들 4명의 면접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16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6명의 원자료 분석이 포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분석을 멈추었다. 최종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 자료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식에 의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서로 분석하였다.

개방코딩(open coding)은 참여자의 이야기를 축어록으로 만들었을 때 각 서술형 문장을 하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o.	연령*	생활 지역	직업	종교	학력	결혼 상태	사별 원인	사별경과 기간	현재생활 만족도
1	20대 중반	광주	어린이집 교사	기독교	대졸	미혼	심정지	6년 2개월	보통
2	20대 후반	광주	취업준비생	무교	대졸	미혼	암	14년 2개월	보통
3	50대 후반	전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독교	전문대졸	기혼	후두암	44년 9개월	매우만족
4	30대 후반	서울	주부	무교	전문대졸	기혼	간암	19년 6개월	약간 만족
5	40대 초반	서울	유아 방문교사	기독교	대졸	미혼	질병	28년 3개월	보통
6	20대 초반	전남	간호사	기독교	전문대졸	미혼	질병	2년 1개월	보통
7	40대 후반	전남	바리스타	기독교	대졸	기혼	질병	36년 0개월	매우만족
8	25대 중반	경남	회사원	무교	대졸	미혼	질병	13년 4개월	보통
9	30대 후반	전북	사회복지사	기독교	전문대졸	기혼	지병	28년 4개월	약간만족
10	20대 후반	경기도	미술강사	기독교	대졸	미혼	유방암	13년 9개월	보통
11	20대 후반	강원도	웹 프로그래머	무교	대졸	미혼	지병	12년 8개월	약간 만족
12	30대 초반	경기도	주부	기독교	대졸	기혼	암	17년 11개월	매우만족
13	50대 초반	광주	대학생	기독교	전문대졸	기혼	질병	37년 1개월	매우 만족
14	20대 초반	경기도	대학생	천주교	고졸	미혼	급성 심정지	2년 8개월	약간 만족
15	40대 후반	서울	주부	기독교	고졸	기혼	의료 사고	29년 11개월	매우만족
16	60대 초반	광주	대학생	불교	전문대졸	기혼	지병	43년 10개월	약간만족

\* 참여자 식별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략적인 연령만을 표기함.

나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쪼개는 작업으로 코딩의 첫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원자료를 한 문장씩 분석하여 참여자의 표현 자체와 그 이면에 내포된 심리적인 의미를 탐색하여 개념을 도출해 명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 개념들 중 관련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 개념의 의미를 모두 반영하는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축코딩(axis coding)은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며 속성과 차원 수준을 고려하며 범주

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이 단계에서는 면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며 선행 면접의 원자료에서 도출된 개념들이 그 다음 참여자 면접으로부터 도출된 개념들과 유사한지, 다른 점이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발견되는 내용과 그 이면의 심리적 현상을 기록하고, 순간순간 메모하며, 개념과 범주들을 도표로 만들면서 수정하고 범주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분석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범주를 취합하고 정련하는 과정이자, 분석한 내용을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선택코딩의 첫 번째로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범주를 결정하였고, 참여자들의 개인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차원의 수준에서의 경험을 상황모형이론으로 구축하였다.

#### 연구의 타당성과 엄격성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매우 다른 점은 질적 연구자가 자료와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보며 주관적으로 통찰한 것을 근거로 연구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질적 연구 해석의 주관성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명확하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에도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신용성(trustworthiness)은 참여자가 면접에서 개방한 내용이 연구자가 기술한 결과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다. 신용성의 확보를 위해 수집된 자료 분석을 마친 후 분석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힌 3명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연구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다음 범주와 개념들이 서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둘째, 중립성(neutrality)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분석 과정에서 사별과 애도, 심리적 성장에 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

하려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애도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부적응적이다. 애도 과정에서 성장이 있어야만 적응적이다'라는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즉시 자료에 메모를 해두고 의식적으로 계속 질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편견이 적용되는지 자문하고 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참여자의 표현과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전이성(transferability) 또는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참여자들이 개방한 경험의 내용들을 코딩하여 범주화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제 3자 또는 제 3의 집단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다. 이는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사별이라는 동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 2명에게 연구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각 개념과 범주가 주제의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신뢰성(dependability)은 연구 결과가 동일하게 반복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해석하므로 문장 기술방식과 단어의 선택에 따라 결과물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결정한 주관적 자취(trail)를 다른 연구자들도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으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 특히 코딩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이 작업을 확인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와 다른 분석가 1인(상



담심리학 교수)이 각각 코딩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상호비교하면서 핵심 개념과 상·하위 범주들을 수렴하여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질적 연구 및 애도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수료생 2인에게 범주화의 타당성 평정을 의뢰하여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결 과

개방코딩: 청소년기 어머니 사별경험 성인 여성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경험에 대한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16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개별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원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을 묶어 범주를 형성한 뒤 하위범주들의 연관성에 따라 더 큰 범위의 범주를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개방코딩을 실시한 결과 총 241개의 개념과 76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절에서는 15의 범주를 중심으로 경험 과정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각 항을 구성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범주 및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범주화 구성표는 표 2에 제시하였다.

### 범주 1: 엄마의 죽음 인지

참여자들은 엄마의 사망소식 및 과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회고하였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 웬일이야, 체

육 시간이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운동장에서 그냥 여느 때처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반장 남자애가 어디서 튀어나오더니 제 이름을, “야 000! 크게 부르면서 너 엄마 죽었다, 빨리 병원가.” 근데 애들이어서 철이 없고. (울먹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빨리 저를 병원가게 하려고 급하게 부르고 하다 보니까 반장이 왔던 것 같은데...(참여자 10)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한 4기로 되는 거리를.. 그때는 길도 안 좋잖아요. 거기를 한 번도 안 쉬고 집에까지 달려간 기억은 선명해요. 숨이 차는지 어찌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옆도 안보고 달려갔어요. (참여자 19)

### 범주 2: 사별 직후 정서

참여자들은 사별 직후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표현하였다.

엄마한테 못해준 게 너무 기억에 남아 가지고. 맨날 짜증만 내고 그랬으니까. (울먹임) 그게 많이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뭔가 더 잘해줄걸... (울음) (참여자 6)

그때 저는 눈물은 안 났는데 진짜 망치로 한 대 때렸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여자 10)

그때 제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부재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어서... 그냥 엄마한테 빨리

표 2.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함/ 사망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함	사망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접함	1. 어머니 죽음 인지
가족원이 우는 모습을 봄/ 가족원이 절규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봄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원의 반응 목격	
임종을 지키며 죽음을 실감함/ 어머니의 장사를 보며 죽음을 실감함/ 어머니의 시신을 만져보고 죽음을 실감함	죽음 실감	
예기된 죽음이라고 여김/ 죽음이 갑작스럽다고 느낌	죽음의 갑작스러움	2. 사별 직후 정서
죽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어안이 병병함/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변함없는 일상이 이질적으로 느껴짐	죽음 수용 어려움	
처음 경험하는 죽음에 생소함을 느낌/ 미안함과 후회를 느낌/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느낌/ 한없는 슬픔에 지침/ 몸이 떨림/ 무서움을 느낌/ 무기력함을 느낌	애도의 복합적인 감정	
장례식 후 슬픔이 물러옴/ 신체적 증상이 발현함/ 자살 충동이 일음	사별 초기 애도의 감정	3. 시간에 따른 정서의 변화
이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회한/ 효도할 길이 없음에 안타까움/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가는 것에 대한 서글픔/ 원망/ 무더지는 감정/ 여전히 어머니를 갈망하는 마음	성인기까지 유지되는 애도의 감정	
어머니의 사망 나이에 가까워질 때 두려움을 느낌/ 어린자녀들을 두고 먼저 죽을까 봐 두려움/ 아버지 사별을 상상할 때 두려움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되는 두려움	
어린 형제자매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 중요행사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함/ 집안 일을 도맡아 함	가족 역할 변화로 부담 가증됨	4. 가족 분위기 및 역동 변화로 인한 적응 및 부적응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어머니와 함께 노력함/ 새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함/ 친엄마와 새엄마의 장점을 비교하면서도 인정함	재혼가정에서의 적응	
아빠는 새엄마 편/ 새어머니의 과도한 요구/ 아빠와 새어머니의 불화/ 정반대인 친엄마와 새엄마의 성향으로 적응 어려움/ 새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혼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새엄마에게 따뜻한 사랑을 못 느낌/ 새엄마와의 오프로 인한 갈등/ 새엄마의 경제적 지원 부족/ 새엄마가 친자녀만 챙김	재혼가정에서의 부적응	
가족에 대한 격정/ 아빠에 대한 원망/ 아버지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움/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	가족원에 대한 관점이 변화함	5. 성격 변화
자존감 및 자기가치감 감소/ 말수가 적어지고 눈치를 봄	부정적 자기 개념 형성	
먼저 마음 열기가 어려움/ 사람에 대한 불신/ 비참한 상태를 비교하게 됨	대인관계 회피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 어려움/ 깊이 없는 이성관계 반복	이성관계 어려움	6. 대인관계 변화
어머니의 존재 여부 자체를 비교함/ 어머니의 지원과 쟁김을 받는 타인과 비교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 참여 어려움/ 어머니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더 받은 형제들과 비교함/ 출산 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여성들과 비교함	모사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7. 모사별로 인한 일상의 애환과 고충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대상이 없음/ 힘들 때 어머니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 좋은 소식에 기뻐해줄 어머니가 없음	모녀간 고유한 정서적 지지를 공유할 수 없음	
첫 월경에 당황함/ 결혼, 출산,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없음/ 배우자 선택에 있어 어머니의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어머니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여성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어머니의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여성으로서 발달단계 정보를 얻기 어려움	
예의범절을 몰라 다른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음/ 예의범절의 의미를 알려줄 어머니가 없음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음	
진로준비가 뒤처짐/ 희망하는 진로에 자신 있게 도전하기 어려움/ 적성 및 재능을 발견하지 못함	학업 및 진로 추구 어려움	

표 2.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계속 1)

개념	하위범주	범주
다른 형제들에 비해 사랑을 주지 않은 엄마/ 엄마의 애정결핍으로 인한 비관적 사고	엄마의 차별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한 상처	8. 사별한 엄마에 대한 양가감정
우울했던 엄마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 대신에 스스로를 챙김/ 자신의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두려움	정신적으로 불안한 엄마에게 지지를 받을 기회 상실	
엄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마주하기 어려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	엄마에 대한 양가감정	
자녀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함/ 자녀와 소통하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공부할 힘	자녀들에게 상처주지 않기 위해 무리하는 엄마가 됨	
남편과의 불화/ 남편의 정서적 지지 부재	결혼생활 어려움	9. 모사별로 인한 결혼생활 및 양육 어려움
딸과 정서적 유대감을 못 느낌/ 딸의 사춘기를 이해하기 어려움/ 애정 어린 소통 방법을 몰라 다정하게 챙기지 못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 못함/ 자녀의 정신건강에 도움 제공 어려움/ 자녀의 학업 및 진로를 돕는데 자신감이 없음	자녀와의 소통 어려움	
출산과 양육의 두려움	출산과 양육의 두려움	
아플 때 시댁식구들의 외면과 비난을 경험함/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함	시댁에서 받은 상처를 홀로 감당해야 함	
남편의 위로와 공감/ 형제들끼리 서로 지지하며 의지함/ 조부모의 돌봄 및 훈육	가족원들이 힘이 됨	10. 지지체계의 위로와 도움을 받음
기일마다 산소에 갈 수 있게 배려해줌/ 애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	충분한 애도의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줌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줌/ 특별한 날 관심을 가지고 챙겨줌/ 여성의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줌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소소한 지원을 줌	
종교적 공동체의 관심과 위로를 받음/ 종교적 공동체의 영적 지지를 받음	종교적 공동체의 지지를 받음	
상실경험이 있는 사람의 공감/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어보는 말/ 엄마와의 추억을 드러내는 말/ 시간을 같이 보내주겠다는 약속/ 적응에 대한 격려의 말	도움이 되는 언어적 위로	11. 애도의 장애물
함께 있어주며 말을 들어줌/ 비언어적 제스처	도움이 되는 비언어적 위로	
사별을 언급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줌/ 결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도 이해해줌/ 사별 외에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함	평소처럼 대해줌	
상담과정에서의 긍정적 피드백	전문가의 긍정적 피드백	
바쁘려고 노력함/ 생각과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함/ 피상적 정보전달/ 타인의 슬픔 반응에 거부감을 느낌/ 밝은 노래만 들음/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것 피함	부정적 감정 회피	11. 애도의 장애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표현하지 않음/ 상대방이 사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것을 봄/ 친밀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함	표현의 적절한 방식을 알지 못함	
아빠가 더 힘들어질까봐 슬픔을 참음/ 아빠의 관찮아지려는 노력에 슬픔을 참음	아빠가 걱정되어 애도를 하지 못함	
첫째로서의 책임감/ 엄마 대신에 어른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씀	첫째 또는 어른다움의 책임감	
사별경험의 가십거리화/ 사별경험의 왜곡된 해석	사별경험의 왜곡 및 가십거리화	11. 애도의 장애물
이해와 책임감을 강요함/ 설명과 조언 위주로 말함/ 추측하는 위로의 말/ 배경지식 없이 감정표현을 요구함	공감이 부족한 언어적 위로의 부작용	

표 2.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계속 2)

개념	하위범주	범주
충분한 애도가 어려운 장애절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직되고 형식적인 장애절차/ 어리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함/ 부적절한 슬픔 표현을 요구받음/ 조문객의 무례한 언행/ 손님이 유가족보다 우위에 있음/ 유가족과 고인의 바람보다 사회적 절차가 우선시됨	적응적 애도를 어렵게 하는 장애 및 제사절차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태도를 가지게 됨/ 슬픈 표정이 아니면 비난받을까봐 두려움/ 약한 모습을 숨기려 정서불일치 경험	타인의 시선 의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12.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한 애도 어려움
엄마 없는 것이 흠인 것처럼 보는 시각/ 모사별이 선자리 및 결혼의 부정적 조건이 됨/ 재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사별 및 애도에 대한 사회적 낙인	
충분한 감정표현이 억압되는 사회적 영향/ 장례식 후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감	정서가가 높은 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죽음이 금기어로 여겨지는 분위기/ 자본주의 사회의 죽음 주제 회피 분위기/ 죽음이 부정적 개념과 연결되는 분위기	죽음의 주제 회피	
특정일마다 엄마를 생각하며 그리워함/ 기념일마다 죄책감을 느낌/ 기일마다 제사를 지냄	기념일 애도	
엄마의 외모를 닮은 사람에 대한 친근함	엄마와 닮은 사람에 대한 투사	
현재 내 나이였을 엄마 모습을 상상함/ 엄마의 나이든 모습을 상상함	세월에 따른 엄마의 모습 상상	
유품을 사용함/ 유품을 잘 보관함/ 유품에 의미가 있음	유품 소지 및 사용을 통한 유대감 지속 노력	
혼자 방문해 애도함/ 가족과 함께 묘소를 방문함	묘소 및 의미 있는 장소 방문	
홀로 있을 때 엄마를 떠올리며 울음/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소리 지르며 울음/ 쓰는 행위를 통해 엄마를 기립/ 슬픈 노래를 틀어놓고 엄마를 떠올림	직간접적 슬픔 표출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다투리려 함/ 엄마에게 다짐하듯 말함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혼자 함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해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음	사별 전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함	13. 개인적 애도 방식
엄마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추억/ 엄마의 선한 영향력을 기억함/ 항상 기도하던 엄마를 기억함	엄마와의 추억 회상	
엄마가 편한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엄마가 남들보다 일찍 죽음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함/ 사별로 인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생각함/ 엄마가 지켜주고 있다고 믿음/ 이른 사별에도 잘 적응했다고 생각함	사별의 긍정적 인지 재구성	
신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함/ 엄마의 영성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믿음/ 종교 활동을 통해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려 함/ 신에게 아픈 마음을 털어놓음	사별의 영적 재구성	
엄마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에게서 그대로 나타남/ 엄마의 생전 습관과 삶의 태도를 본받음/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훗날 자녀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	엄마의 성향 및 가치 내재화	
사후 엄마를 만나는 상상을 함/ 사후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함	사후 엄마와의 만남 상상 및 기대	
엄마가 살아있는 꿈을 꿈/ 생전 바랐던 엄마의 모습이 꿈에서 재현됨/ 과거 엄마와 행복했던 추억이 꿈에서 재현됨	꿈을 통해 엄마를 재회하거나 추억이 재현됨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생각함/ 현재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 함/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성공을 다짐함/ 사별 전 긍정적 모습을 회복하려 노력함/ 엄마와 하지 못한 경험을 새로운 가정에서 재현하겠다는 다짐/ 사별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다짐/ 고통 감내의 의지	인지적 대처 및 새로운 다짐	14. 대처방식 마련
신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함/ 종교적 및 영적 활동을 함	영적 대처	
상당관련 공부를 함/ 상담활동에 참여함	전문적 도움 추구 및 상담관련 공부	

표 2.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계속 3)

개념	하위범주	범주
신에게 의지하여 힘을 얻음/ 신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 영적 신념으로 양육하려 노력함/ 영적 의식을 통해 지혜를 얻음/ 용서와 회복	영성이 높아짐	
죽음을 가깝게 여기며 삶에 의미 있게 살려 노력함/ 현재 삶에 감사함/ 죽음도 복이라고 생각함/ 선택의 기로에서 본질적인 것을 선택함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적성 및 잠재력 발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함	자신에 대한 성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함/ 아버지와 화해함/ 아버지에게 효도하려는 노력/ 자매와 정서적 교류가 늘어남	가족원의 마음 이해 및 관계회복	
생전 엄마의 삶을 이해함/ 양육을 통해 엄마를 더 이해함/ 생전 좋은 추억을 만 들어준 엄마에게 감사함	엄마에 대한 이해 및 감사함	
감정조절을 적절하게 함/ 감정표현을 적절하게 함	감정조절 및 표현을 적절하게 함	15. 심리적 성장
문제해결 속도가 빨라짐/ 능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함/ 책임감이 커짐/ 도전의식이 생김	독립성 및 자율성이 증가함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함/ 사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 설명해줌/ 상처를 개 방하고 공유함/ 사별경험을 통해 타인을 격려함/ 다양한 관점 존중	타인을 존중함	
아픈 만큼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낌/ 아픔이 있기에 나누고 치유할 수 있음	아픔이 감사로 변함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봉사자의 마음/ 인간에 대한 관심과 봉사자의 마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자녀들을 존중하며 대화함/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줌/ 삶과 죽음에 대 해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	자녀를 위한 건강한 양육방식 모색	

가고 싶은 마음? 죽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 웬지 살아계실 것 같은, 그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자 12)

**범주 3: 시간에 따른 정서의 변화**

사별 초기에는 장례식 후 홀로 마주하는 애도의 감정들이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라 개인적 애도와 상호작용하는 감정들도 나타났다.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학교 다니고 할 때 그 때 이계(부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없다는 게 뭔지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장례식 후로) 일주일? 그 때서야 확실히 부재가 뭔지. (참여자 8)

살면서 느낀 것이 울타리가 없다는 느낌 있잖아요. 엄마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 돌아가시고 좀 지나서부터는 슬픔이라는 걸 항상 느끼죠. (...중략...) 제가 늘 정서적으로 부족하니까, 뭔가 안 채워져 있는 거 같아, 항상. (참여자 13)

제가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일 밖에 없다... (참여자 16)

**범주 4: 가족 분위기 및 역동 변화로 인한 적응 및 부적응**

사별 이후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와 역동이 변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가족 역할 변화와 재혼가정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막내 동생 학교에서 상담하러 오라 그러면 엄마가 아니라 제가 가잖아요. 되게 창피한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언니데, 누난데 내가 가야하니깐. 남동생 결혼 시킬 때도 우리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제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제는 다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뭐 제대로 한 적도 없겠지만 힘든 거예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참여자 5)

새어머니 들어오고 나서는 언니집이나 오빠집에 가서 살았어요. 원래 집에서 같이 못 살고. 오빠랑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데 오빠 자녀들이 나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개네들이랑은 잘 못 지냈어요. 내가 영 마음이 불편하니까. (참여자 7)

언니는 취업을 나가고. 오빠도 도시로 학교 가고, 저하고 동생만 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 그때부터 집안 살림을.. 새엄마도 방앗간 일한다고 제가 집안 살림을 거의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말도 못하죠. 지금도 오빠가 그 애길 하더라고요. 그 시골 방앗간에서 가끔 오빠가 대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동네 친구 집 놀러갔더니 오빠 친구엄마가 지금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밥한다고 집에 간다고 했다고. (참여자 9)

#### 범주 5: 성격 변화

사별의 영향으로 가족 역할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자기 개념과 자기표현의 양식 또한 변화함을 경험한다.

주변의 얘기는 다 들려요. “엄마가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사냐.” 어른들이 그래요. 저는 이제 엄마 없는 애인 거예요. ‘그렇구나, 앞으로 나는 막막하구나.’ (참여자 9)

내가 내 가치를 낮추게 되죠. 그리고 결혼도 간소하게. 향교에서 5만원 주고 그냥 한복입고. 그냥 나는 나를 다 내려놨어요. 항상 그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탈무드에는 배우자는 한 단계 위를 선택하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나를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 (참여자 13)

#### 범주 6: 대인관계 변화

참여자들은 다른 상실을 경험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열어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래하고도 힘들더라고. 제가 많이 처내요. 친구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카톡을 나가버린다거나. 쳐내면 오히려 시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공감을 못 받는 사람 들하고 더 있어봤자 저만 더 오히려 힘만 빠지니까. (참여자 1)

사람을 못 믿었어요. 사람은 나를 상처주고 이런 존재라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는 항상 사이가 안 좋고, 엄마는 우울하고. 밑바탕을 못 바꾼 거죠. 절대적인 지지랑 신뢰를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고립상태로 그렇게. (참여자 4)

사람들 만나면 나 사는 거랑은 다 너무 다르니까. 사람을 만나서 도움 되는 건 없

어요.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살고, 가족이 도와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니까 제가 켈 비참하다고 생각했죠. (참여자 13)

#### 범주 7: 모사별로 인한 일상의 애환과 고충

엄마와의 사별로 인해 모든 참여자들이 본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발달단계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학생으로서, 성인 여성으로서, 아내 및 엄마로서 주로 억압하고 버텨냈어야만 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재네들은 모를 거야. 재네들은 엄마가 다 해주는데 나는 내가 이제 다 해야 돼.’ 그니까 아주 사소한 건데도.. 어릴 때 학교 다투는데 걸레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거 엄마들이 다 만들어줘요. 저는 그걸 밤새 만들어서. 그것 자체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들었는데, 저 친구들은 엄마가 예쁘게 바느질해서... (참여자 9)

제가 기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냥 외로운 거예요. 한참 고등학생이고 예민하고, 여학생에. 근데도 말할 곳이 없어요. (...중략...)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잃은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돈 없는 것보다 사람 없는 것이 더 불행이다. 저한테는 엄마가 없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참여자 19)

#### 범주 8: 사별한 엄마에 대한 양가감정

사별 전 부정적인 관계를 가졌던 참여자들

은 엄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여전히 느끼면서도 애정에 대한 욕구도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하며 양가감정의 괴로움을 토로하였다.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셔서가지고 항상 힘이 빠져 있고, 잘 웃지도 않으시고. 엄마랑은 기억나는 대화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아플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게 항상 불만이었던. 정서적으로 많이 못 받은 게. 정서적으로 저는 지지, 사랑을 굉장히 원했었는데. 특히 엄마한테. 왜냐하면 같은 여자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중략...) 지금은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기본적인 슬픔이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제 양육자는 저한테 절대자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는 상태에서 엄마가 울적하고, 차갑고, 그렇게만 나를 대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손도 댈 수 없는 단절감이 진짜.. 정말 할 수 없는 게 없죠. 엄마는 우울해가지고 저를 거의 방치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눈물) (참여자 4)

학교 다닐 때 보면 소풍이나 뭐 그런 것을 하면 부모님들이 챙겨주시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전 엄마가 그런 상태(알코올 중독)고 아빠도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그런 것을 혼자 해야 됐어서. (울먹임) 그게 힘들고 스트레스였죠. (...중략...) 이제 같이 일하는 조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 보면 그분들

은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챙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울먹임) 저는 그런 거를 진짜 평생에 한 번도 받지를 못했으니까 ‘아, 애들을 잘 챙겨주시는구나.’ 부럽기도 한데 조금 속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소풍을 간다거나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뭘 싸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거의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가고 그랬었거든요. (눈물) (참여자 6)

#### **범주 9: 모사별로 인한 결혼생활과 양육 어려움**

참여자 중 기혼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어머니 사별이 성인기 결혼생활과 양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각하며 경험한 어려움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누구도 인정을 잘 안 해줬었어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도 뭐라 하고, 시어머니까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 불쌍하지도 않냐.” 나는 그런 말 들으면 또 그냥 참는 거죠. 아파서 힘도 없고. 혼자 울어요. 그때 너무 아플 때 엄마가 제일 많이 그리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남편도 내 아픔을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아프다고 나한테 짜증만 냈고.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엄마를 더 많이 찾았던 거 같아요. 혼자 엄마 많이 찾고 울었죠. (참여자 7)

결혼부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아마 동정심 때문에. 이 사람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학대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동정심에 결혼을 했는데 초반부터 엉망이었죠. 완전 엉망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죠, 평생을. 초반부터 싸우고 별거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사업병이 도져서 막 쫓딱 망하고. (...중략...) 남편이 술 마시면 맨날 죽여 버린다 그러고. 술 먹고 막 부수고. 딸애는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조용히 일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이렇게 놀고 그래요. 애를 때리진 않은데 애 얼굴에 유리를 막 던지고 악쓰고, 저는 또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쉼터에 가서 제가 딸애랑 3개월 있다 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그것 밖에.. 그니까 아무튼 언어적 학대. 술 먹고 심했죠. 딸은 특히나 제대로 못 키웠죠. 항상 애 앞에서 많이 울고. 아빠가 괴롭히니까. 둘이 바깥에서 헤매고 다니고. 그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그리고 딸이 사춘기 때도 너무 나를 원망했어요. 왜 아빠랑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참여자 13)

#### **범주 10: 지지체계의 위로와 도움을 받음**

참여자들의 애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지체계는 남편, 형제자매, 조부모의 가족단위와 친구, 지인, 종교적 공동체, 그리고 상담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일찍부터 없으니까요, 언니가 그 엄마 자리를 대신 했어요. 언니가 일찍 취업을 나갔지만 편지를 자주 했었어요. 그때는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언니가 항상 이해한다고. 너도 힘든 거 다 안다. 그



래서 아, 언니는 내맘 아는구나. (울컥) 위안이 됐죠. 그리고 그때 한 5년은 그렇게 사춘기를 넘겼던 거 같아요. 지금도 언니한테 고마운 게 언니가 그렇게 잘 챙겨주고 저한테 의지가 돼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9)

대학교 앞에 있는 기관에서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 상담센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자 선생님이. 그렇게 상담자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좀 더 극복하지 않았나. 정신적인지. 그런 걸 통해서 극복을 한 거 같아요. (참여자 15)

#### 범주 11: 애도의 장애물

애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지지체계와 위로의 형태가 있는 반면, 애도의 감정을 회피 또는 억압하게 하는 장애 요인들도 있었다.

제가 장녀니까 웬지 내가 슬퍼하는 걸 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애어른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되게 어른 같다. 애가 어쩔 어른 같니?” 이런 소리를 듣고. 그게 심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참여자 5)

너네가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어찌겠냐고. 너네가 착하게 해야 아빠가 괜찮아진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해야 되는구나.’ 그니까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다 너네들 보듬어야 하

는데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시고 애들이 어른을 이해했으면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당시에. (참여자 9)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나도 집에서 지금 새엄마하고 관계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막 보려고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물어봐요, “새엄마가 뭐 밥은 잘 해주니? 엄마가 이거는 해줬니? 어떻게 하니?” 이런 질문들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게 떠보시는 거구나,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것이 좀 싫었어요. 그니까 저를 위하는 말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 말 속에 왜 이렇게 가시, 뼈가 있는 느낌? (참여자 12)

#### 범주 12: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한 애도 어려움

애도의 장애물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우리나라의 장례절차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장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분위기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장례식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조문하러. 그니까 좀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시는 분마다 인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슬픔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울음) 근데 반찬 나르는 것, 없으면 또 갖다 줘야 되고, 진짜 힘든데 그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고 이려고 있으니까, 이게 남은 가족을 위한 건 아니다 싶었어

요. (참여자 6)

우리나라 장례식은 복잡하긴 한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우리나라의 유교문화.. 나쁜 건 아니지만, 막 어른들이 이런 건 이미 정해져서 절대 바꿀 수 없다 하고 그런 게 제일 싫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정해진 그런 장례문화, 제사문화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거. 진짜 사람 목숨이 위험하다거나 그래서 엄청 필요하다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하는 명분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11)

### 범주 13: 개인적 애도 방식

모든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인이 된 엄마를 그리워하고 기리는 애도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항상 기도하던 엄마, 그게 내 안에 여태 있어서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고.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점차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지. 내 자녀들한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은 또 자녀들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참여자 3)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전혀 생각도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그때 제가 17살이었고 지금 30인데. 그니까 지금 제 나이였을 때 엄마는 어땠을까 상상도 해보고. (참여자 11)

엄마가 쓰던 접시를 친정에서 갖고 왔

어요. 마늘 찢는 도구 있잖아요. 사기로 된 거 가지고 있어요. 엄마 유품. 엄마 생각에 제가 챙겨놨었죠. 이건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 하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참, 그러니까 마늘 하면 엄마 생각이 나요. (웃음) (참여자 13)

### 범주 14: 대처방식 마련

참여자마다 사별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하는 대처방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1년 반 전에 심리상담도 받았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제가 성격이 확 변할 정도로. 1회기만 받았는데도 그 한 번으로 이렇게까지 변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영향력이 있었죠. 그냥 얘기를 하면 공감? 딱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사실 친구나 일반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그런 말 듣기 어렵잖아요. (참여자 4)

새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기적이어도, 어쨌든 간에 엄마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왔잖아요. 소풍갈 때 도시락이라도 싸주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뭐라고 집에서 혼내든 간에 도시락 싸주지, 아침 밥 챙겨주지. 뭐 잔소리를 해도 일단은 그런 건 채워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갔다 와서 새엄마라고 해도 엄마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 그게 다행이지. (...중략...) 그니까 사람들이 새엄마가 어쩐다 저쩐다 해도, 아빠 재혼했네, 이렇게 속닥거리도 다 남의 말이고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말이야. 이렇게 아무리 힘든 일

이어도 뭘 어떻게 깨닫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참여자 9)

### 범주 15: 심리적 성장

참여자들은 능동적으로 사별에 대해 애도하며 나름대로의 대처방식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내가 엄마를 통해서 죽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호스피스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삶이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섭고 나쁘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도 축복이다, 죽기까지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여자 3)

이제는 ‘아, 괜찮아 나는. 이 상처가 있었어.’ 하면서 나의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평화가 오더라고요. (…중략…) 부모님 돌아가신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픔을 겪었다, 아픔이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가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걸 제가 말을 하면 거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일단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생겼어요. 나는 정말 내가 특별하고, 내가 진짜 주인공인줄 알았는데. 누구나 아프고 즐거운 스토리가 있구나. 다들 저마다의 드라마고, 저마다의 주인공이고, 나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여자 10)

일단은 죽음을 대부분 다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무서운데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죽음 앞에 저는 되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올 때까지 정직하게 제 삶을 잘 살아낸다는 의미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참여자 12)

축코딩: 청소년기 어머니 사별경험 성인 여성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 결과는 모든 범주들의 교차성과 연결성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모사별 여성들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경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근거에 의해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 과정분석

다음 단계로,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성인 여성의 애도 과정 및 심리적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을 중재하는 조건과 중심현상을 다루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실행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과정분석이 필요한 시점인데, 과정분석이란 수집된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규명된 범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연속적 관계들을 살펴보고, 집단에서 개인들의 작용/상호작용의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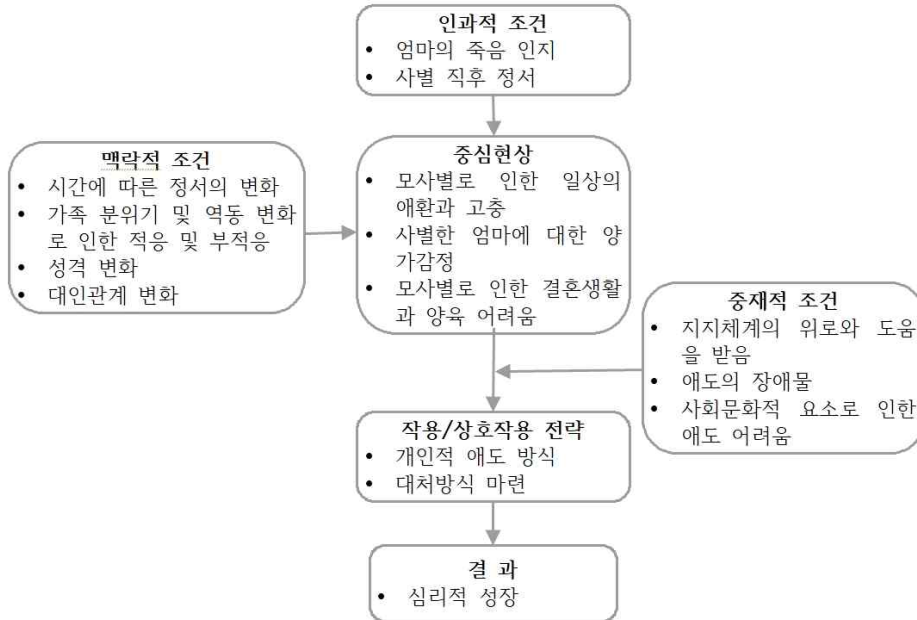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기 모사별 성인 여성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패러다임 모형



그림 3. 청소년기 모사별 성인 여성의 애도 경험 과정분석

동 변화를 추적하여 예측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혼란 단계: 슬픔 속에서 발버둥치기’, ‘버티기 단계: 나와 주변 세상의 변화 지각하기’, ‘부딪히기와 지속적 연결 시도 단계: 현실 직면과 반복적 애도 의식’, ‘재구성 단계: 사별을 새롭게 바라보기’, ‘회복 단계: 편안한 유대감 지속’, ‘성장 단계: 결과 속이 너그러워짐’의 6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는 단순히 일방향적

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중재적 조건에 따라 역행하거나, 한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계별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과정분석을 도식화하여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선택코딩: 핵심범주와 상황모형

선택코딩은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선행 분

석 단계에서 도출된 범주를 모두 취합하여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선택코딩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모두 압축하여 이들의 경험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 범주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험을 개인과 대인관계, 사회적 차원의 수준에서의 경험을 상황 모형이론으로 구축하였다.

### 핵심범주

핵심범주를 명명하는 것은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과에 나타난 모든 범주를 통합 및 정교화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핵심범주는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본질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박승민 외, 2016).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는 ‘사별한 엄마를 심고 나를 키워감’으로 범주화되었다.<sup>1)</sup>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내면에 새롭게 재정립하여 간직하고 유대감을 지속하려 노력한다. 여기서 ‘사별한 어머니를 심는’ 행위는 애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물리적으로는 땅속에 ‘심었던’ 엄마를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심는’ 것이다. ‘개인적 애도 방식’에 속하는 하위범주 및 개념들은 이렇게 ‘사별한 엄마를 심는’ 행위들을 나타낸다. 특정일마다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의 기억을 끊어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망하며 엄마와 닮은 사람을 볼 때

엄마를 생각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것, 세월에 따른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유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 엄마의 부재를 슬퍼하는 것, 타인과 엄마를 함께 추억하며 기리는 것, 엄마의 긍정적인 성향과 가치를 내재화하거나 닮고자 하는 것 등이 모두 ‘사별한 엄마를 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심는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나, 어머니를 여의고 마음속으로 평생 어머니를 기리며 산다는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시구와 상징적으로 맞닿아있다고 사료되어 ‘심는다’는 표현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고인이 된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재정립하며 사별의 막연한 슬픔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이전보다 더 단단한 내면을 가꾸게 된다는 점에서 핵심 범주의 절반을 ‘나를 키워감’이라 명명하였다.

### ‘사별한 엄마를 심고 나를 키워감’ 상황모형

상황모형(conditional matrix)은 핵심범주를 큰 틀로 설정하고, 다양한 상황적 조건(인과적, 맥락적, 중재적)이 미시적 및 거시적 관점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상호작용하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모형이다. 지금까지 도출된 모든 범주를 통합하여 설명하는 단계로, 중심현상에 대해 더욱 명료한 설명을 제공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사별한 엄마를 심고 나를 키워감’에 대한 상황모형은 참여자들의 개인적 수준으로부터 가족과 주변인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수준, 더 나아가 사회수준으로 확장된다.

1) 핵심범주는 문인수 시인의 <하관>이라는 짧은 시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참여자들의 진술과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엄마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제시하였다.

### 개인수준

엄마의 사망사실을 인지함으로써 각자의 방식으로 사별의 인사를 하는 것은 개인 내적으로 엄마의 사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중심현상인 ‘모사별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을 개인수준에서 맞닥뜨리게 한다.

사별 직후에 죽음을 수용하기 어려운 듯한 느낌과 더불어 추상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애도 감정의 큰 스펙트럼을 경험하며 점차 엄마의 현실적 부재에 익숙해지나, 동시에 그만큼의 심리적 공허함과 그리움을 늘 경험한다. 이는 맥락적 조건인 ‘사별직후 및 시간에 따른 정서변화’의 영향이다. 시간에 따라 사별 당시에는 강렬했던 애도 감정들이 서서히 무뎠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많은 참여자들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발달과정에서 엄마에게 효도할 수 없는 현실에 황망함을, 빈자리에 대한 커지는 그리움을, 여전히 엄마를 갈망하는 마음을 느끼고, 심지어 사별 후 심리적 아픔을 표현하지 못해 신체증상으로 발현되는 경험을 하였다.

성격의 변화 또한 개인수준에서 맥락적 조건으로서 작용한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 사별 이전에 철없고, 해맑고, 엄마가 늘 기동처럼 존재한다고 믿는 기세등등한 여학생이 아니다. 이전보다 훨씬 말수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약자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되는 ‘개인적 애도’와 ‘대처방식 마련’에서 엄마를 기리는 다양한 의식을 하는 애도 작업들은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개인수준에서 참여자들은 인지적 및 영적 재구성을 통해 엄마의 존재와 사별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엄마와의 유대감을 지속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엄마의 생애를 이해하고 감사해하며,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나름대로 재정리함으로써 엄마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향 및 가치를 내재화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보다 겸손하면서도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 대인관계수준

참여자들 중 대부분이 사별 후에는 엄마의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된다. 여기서 맥락적 조건인 ‘가족 분위기와 역동 변화’와 ‘대인관계 변화’가 작용한다. 참여자들은 이제 엄마 대신 동생들을 보살피야 하고, 때로는 동생들의 중요한 행사에 ‘집안의 어른’으로서 나서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기, 사춘기 여학생일 뿐이기에 자녀들을 걱정해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인다. 새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가족 분위기와 역동에 참여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대인관계수준의 중재적 조건은 ‘애도 방해 요인’이다. 가족원들이 모두 힘든 상태에서 각자의 일로 바쁘고, 참여자는 사별 전에 주로 엄마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들과 밀바닥에 있는 감정들을 꺼내어 공유하기가 어려움을 경험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참여자가 청소년기에 일찍이 엄마와 사별한 경험을 부끄러운 일처럼 가십거리화하는 현상이 해당된다. 엄마의 사별에 대해 참여자보다 더 많이 안다는 듯한 설명이나 조언,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공감의 부족한 막연한 위로는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방어 자세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긍정적인 중재적 조건으로 친형제들과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소소한

지원을 제공하는 친지와 친구, 이웃이 있었기에 적응과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대인관계수준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엄마를 잘 알거나 평소 엄마를 존경하던 사람들과 엄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참여자가 스스로 엄마가 되어 자신의 엄마에게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인관계수준에서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관점을 존중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일상의 고충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신의 사별경험을 개방하고 타인을 격려하게 된다.

**사회수준**

사별 후 일상의 애환과 고충에 대해 개인적 애도와 대처방식을 마련함에 있어 중재적 조건인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한 애도 어려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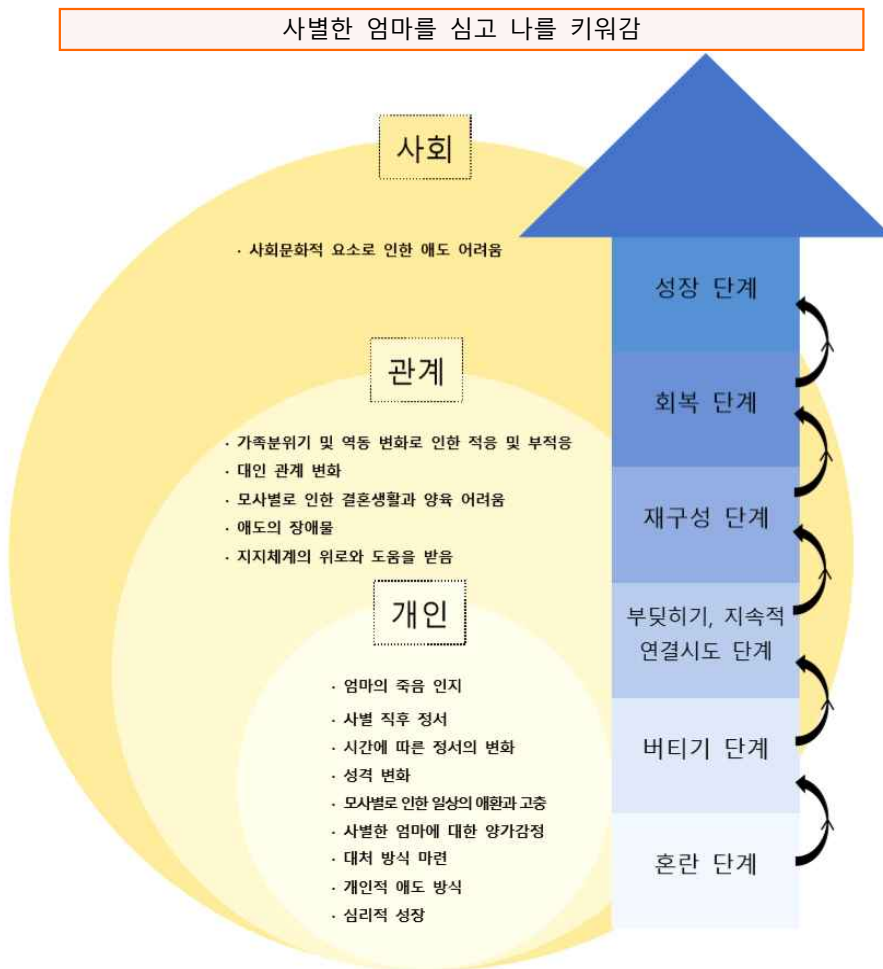


그림 4. '사별한 엄마를 심고 나를 키워감' 상황모형

사회수준에서 대표적으로 작용한다.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에 따르면, 장례에서 모사별 참여자들은 오히려 매우 분주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직된 절차들로 인해 적절한 애도를 할 수가 없었다. 사회적으로 ‘어린 연령층’에 속한다는 이유로 어른들의 세심한 설명보다, 어른들을 따라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일손을 돕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어 정작 유가족으로서 엄마를 잘 떠나보내는 의식에 집중하지 못했다. 엄마의 죽음에도 타인들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슬픔이 부적절한가를 늘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훗날 성인이 되어 배우자감을 소개받는 경우에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약점으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온전한 가족’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참여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정서가가 높은 감정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수용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주제, 즉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돕는 사회 및 교육 제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적응적인 애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상황모형은 그림 4와 같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제기하였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의 심리적 상실 경험에 대

한 것이다. 먼저 인과적 조건인 ‘엄마의 죽음 인지’와 ‘사별 직후 정서’는 사별경험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해 이차적인 심리적 상실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엄마의 물리적 죽음으로 인해 사별 전에 형성되었던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 등을 상실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일차적 양육자의 정서적 지지 없이 스스로 큰 변화를 맞닥뜨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이 엄마의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심리적 엄마로서 가족 정체성을 형성하여 가족의 여러 행사에도 주요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나 참여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엄마가 여성으로서 감당하던 역할을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맡아 하면서 남성 가족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여자 5는 사별 전까지 집에서 함께 살았던 할머니가 며느리 없는 집에서 아들에게 얹혀사는 것은 올바른지 않다고 생각해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통해 ‘엄마’, ‘아내’, ‘며느리’, ‘여성’의 역할을 하며 가족을 위해 늘 고생하던 엄마를 회상하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애도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제 자신이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삶의 고충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엄마와 투사적 동일시(Hamilton, 2007)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 자녀들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일차적으로 안내하는 자원, ‘여성됨’과 관련된 역할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은 상실감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들(Pill & Zabin, 1997; Zaiger, 1985)의 주장과 비슷한 결과이다.

사별의 발생과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영향



으로 참여자들은 중심현상, 즉, ‘모사별로 인한 일상의 애환과 고충’, ‘사별한 엄마에 대한 양가감정’, ‘모사별이 결혼생활과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한다. 여기서 나타난 중심현상은 청소년기 어머니 사별이 심리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상실을 말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모사별로 인한 일상의 애환과 고충’은 모든 참여자들의 상실감이 현실화되는 경험적 증거들이다. 참여자들은 어머니가 생존하는 다른 여성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높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지지라는 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러한 정서적 지지가 모여 청소년기에 단단한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Schultz, 2007)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안전감이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새어머니의 등장 또한 기존의 안정적인 가족 분위기의 상실을 동반하는 요인이다. 엄마와 성향이 정반대인 새어머니가 등장한 후 아버지를 중간에 두고 딸과 새어머니라는 두 여성이 대립하거나, 새 자녀들보다 친자녀 또는 자기 자신만 챙기는 새어머니와 같이 살며 참여자들은 아빠에 대한 원망, 새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그러면서 친엄마의 부드러운 중재가 상실되었음을 더욱 느끼고 고인이 된 엄마에 대한 그리움 증가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단순히 재혼가정의 문제, 또는 정체성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인이 된 엄마에 대한 애도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도 전에 새로운 역할 감당과 새어머니를 가족구성원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참여자 2와 16은 초경에 대한 당황스러운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참여자 10과

13은 초경을 할 때 엄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여성으로서 2차 성장을 겪을 때 엄마가 그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은 사별 후 이차적 상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별에 대한 애도뿐 아니라, 부차적으로 경험하는 상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애도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가족원을 맞이한다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일 것이다. 사별 후 가족 역할 변화와 새로운 가족원과의 적응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기에, 애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경험을 막기 위해 다른 가족원들을 통제하려 들거나 과도하게 보호할 수도 있다(Anderson & Sabatelli, 2007).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족원 간 적응적인 역동과 서로의 입장 이해를 돕는 가족상담이 중요한 개입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모사별로 인한 결혼생활과 양육 어려움’이라는 중심현상은 특히 기혼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남편과의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 측면에서 효능감 및 자신감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대인관계 인지능력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청소년 시기에 엄마와 친밀한 대화 경험 없이 부드러운 의사소통 방식을 모르고 살다가 결혼하여 남편 및 자녀와의 소통이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기혼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자녀에게 애정을 주는 것, 정신건강에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는 것, 학업과 진로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에 있어 엄마로서의 의지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가 청소년기부터 어머니-딸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결혼 및 양육 경험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시사한다.

중심현상의 하위범주인 ‘사별한 엄마에 대한 양가감정’은 참여자들 중에서도 사별 전 엄마와 갈등관계에 있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참여자 1, 4, 6, 16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 참여자들은 엄마가 생전에 자신들을 대했던 부정적인 방식에 분노가 남아 있다고 표현하였다.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엄마를 애도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사람에게 한 맺힌 마음을 표현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어 응어리진 마음을 들춰볼 때마다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 언어적 처벌이나 형제와의 차별로 양육태도를 보였다면 장기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Hamilton, 2007). 이 사실을 고려했을 때, 사별 전부터 엄마에 대한 응어리와 분노, 서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적응적인 애도를 하고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의 애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두 가지 큰 틀에서 보자면 적응적 애도를 돕는 지지 요인과 애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지체계는 일반적으로 친형제, 남편, 친구, 이웃, 그리고 종교적 공동체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의 아픔을 극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회적 지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처하고 심리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애도를 방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는 매우 큰 맥락에서 참여자들에게 애도의 어려

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속한 특정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은 삶의 양식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Calhoun, Tedeschi, Cann, & Hanks, 2010). 즉, 사회에서 청소년기 부모사별을 바라보는 시선과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 또는 편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참여자 9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사별 당시에 누구에게도 사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듣거나, 엄마를 애도하며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이해 받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비슷하게, 참여자들 중 어느 누구도 청소년기 어린 학생으로서 사별경험에 따른 큰 상처와 내적 갈등 및 혼란에 대해 사회적으로, 특히 어른 세대에 대해 존중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모아졌다.

뿐만 아니라,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면 참여자들도 타인들의 낯설고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상에 적응한 것처럼 생활해야 했던 어려움을 회상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의 독특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부정적 상황에 처한 개인의 입장을 공감하기보다, 오랜 세월 축적된 집단주의 문화의 사회적 조화를 중요시하여 집단 분위기를 흐리지 않게 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른은 ‘어른스럽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아이들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며 ‘조속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유교사상 또는 집단문화가 모두 그릇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합리적인 설명 없이 현상을 그저 마주하고 받아들여

야 할 때 오랫동안 오해와 추측으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감당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심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의 애도 과정에 대한 연구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크게 '개인적 애도 방식'과 '대처방식 마련'으로 참여자들이 중심현상에 대해 중재적 조건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Marwit과 Klass(1996)는 유대감 지속의 지표로서 고인의 삶을 회상하고,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고인의 사진을 보거나 유품을 소지 및 사용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도 방식들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애도 방식들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지, 강영신, 2017; Foster et al., 2011; Marwit & Klass, 1995; Russac et al., 2002). 국외 연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애도 방식이 표면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인간이 사별 경험에 대해 애도 감정을 경험하고 고인과 유대감을 지속하려는 노력은 보편적으로 비슷한 현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애도 방식에는 엄마와 닮은 사람에 대한 투사, 세월에 따른 엄마의 모습 상상 등 엄마의 형상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더불어, 사별에 대한 긍정적 인지 재구성과 영적 재구성을 애도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고인이 된 엄마와 엄마의 인생, 죽음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사별의 현실을 보다 적응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Klass, 1988).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인지적 재구성은 외상사건 또는 상실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처전략으로 밝혀졌다(Wolgast, Lundh, & Viborg, 2011). 한

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적 재구성은 소중한 엄마를 데려간 신을 원망하면서도 신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영적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신을 신뢰하고 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섭리와 힘에 의지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영적 차원의 대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이혜지, 강영신, 2017).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들의 심리적 성장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및 성숙한 성격,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를 심리적 성장의 지표로 보았다. 엄마와의 사별 자체는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사별로 인해 생겨나는 변화들에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엄마가 생존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참 자기 발견 및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 연구에서 상실경험을 한 개인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재구성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와 비슷한 맥락이다 (Neimeyer, 2000; Calhoun, Tedeschi, Cann, & Hanks, 2010; Yalom & Lieberman, 1991).

심리적 성장은 성격적 측면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가족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화해하고자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나아가 사회적 관심까지 가지는 모습들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다수는 사별 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했던 엄마-딸의 관계에서 획득한 정서적 친밀감과 공유하던 가치를 돌아보고 사별 후 변화된 대인관계에 적용 및 조절하는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의 발견과 비슷한 결과이다(Holdsworth, 2007, Rowe & Harman,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사별 전 엄마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참여자들이 엄마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었던 참여자들보다 사별 후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사별 후 심리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지각하기까지 지금까지의 대인관계를 돌아보며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고, 자신이 겪은 사별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생존한 개인들이 삶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동시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발견된 참여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은 이들로 하여금 삶의 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선택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죽음에 대해 다소 개방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분위기와 경직되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 참여자들이 적응적인 애도를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적응적 애도를 위한 공식적인 자원이나 사회적 체계가 부족해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사별을 이해할 수 없는 혼란감과 엄마가 생존하던 당시 굳게 형성했던 자기와 타인에 대한 관점 및 세계관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이러한 애도 감정들과 삶의 여러 영역의 변화를 인정해

주고 적응을 돕는 체계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죽음과 사별을 바라보는 시각, 사별경험 개인들에게 접근하여 위로 또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태도, 유가족이 사별사건에 대응하는 방식, 장례식의 절차와 그 의미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연구 자료나 교육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간호학 분야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종 및 호스피스 관련 연구(김은경, 2002; 두현정, 2008), 병원 내에서 간호사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김은경, 2002; 김필기, 2011)에 그칠 뿐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적응적 애도와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사별 관련 지원 시스템은 아직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자연적 현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에, 본 연구의 발견을 토대로 사별 경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별 관련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별 이후 어려움은 일반적 생활 스트레스와 매우 형질이 다른 것이고,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책임자에서부터 상담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자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것으로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여성 참여자 중에서도 애도와 심리적 성장을 모두 경험하여 자발적으로 그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모든 사별경험 여성에게 적용된다고 결론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질적 결과를 양적 연구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애도 모형 또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질적 및 양적 연구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제한점은 어머니와 사별한 여성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남성의 모사별 경험, 또는 아버지와 사별한 남녀의 경험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애도 및 심리적 성장이 남성 또는 남녀 모두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활용한 질적연구로서 청소년기 어머니 사별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어머니-딸의 특수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국외에서 밝혀온 것과 달리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그러한 관계와 관련된 연구 및 사별의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가 미미했다. 게다가 아동기에 형성한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여성의 애도와 심리적 성장 경험을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연장선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애도 및 심리적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질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별경험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국내 애도 관련 연구 대부분은 양적 방법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연구가 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애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 연구는 미미했다. 본 연구에서는 애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애도를 방해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독특한 요소들로 애도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 사별을 경험하는 개인들에게 상담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때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이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었던 단일모형을 검증하여 상실경험 과정을 단정 짓는 것에서 벗어나, 한 개인에게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애도 감정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 사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별경험에 대한 애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다만 이혜지와 강영신(2017)이 추가적으로 짧은 주관식 문항을 마련하여 도출한 애도 방식을 연구 말미에 정리한 것이 유일하다. 이들도 추후 연구에서 질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애도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월에 따른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엄마와 닮은 사람에게 투사하는 현상 등은 사별과 애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서양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세밀한 애도 방식이다. 이와 같이 질적으로 구체적인 애도 방식을 도출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네 번째,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별로 인해 기존의 일관성 있던 가족 구조가 붕괴되고, 가족원들의 역할 변화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거나,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위해 역할 수행을 재조정하는 과업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이선이, 1995; Davies et al., 1986; Taku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로 가족 역동의 변화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밖에 사별로 인한 가족 환경 변화,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관점 변화, 새어머니가 등장함으로써 재혼가정에서 적응하는 문제 등 가족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역동 변화 등 일련의 경험들은 선행 연구나 기존 이론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범주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섯 번째, 죽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은 가족원 전체이므로 참여자들의 사별경험을 바탕으로 사례개념화를 적용한 애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애도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담을 위해 현존하는 많은 상담 이론과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별을 경험하는 개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접근하기에 가장 유용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애도 상담 사례와 매뉴얼 또는 이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내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애도 상담이 필요한 예비 내담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과 그에 적절한 전문적 도움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과정분석에서는 기존 이론들에서 더욱 확장하여, 단순히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나아가 사별 전과 긍정적으로 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심리적으로 보다 성숙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의 각 단계에서 개인수준의 성찰과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관점 변화,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경험까지 종합하여 상황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애도 과정과 모형이론

이 선행 연구 및 기존 이론에서 더욱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대동 (2004).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2). 호스피스센터에서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애도와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필기 (201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종교성향과 죽음의식이 호스피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현정 (2008). 사별가족의 슬픔 적응 경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6).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학지사.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10).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선이 (1995). 가족의 위기. 여성 한국 사회연구회(편저),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이윤희, 김지연 (2016). 가족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도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7(4), 225-250.
- 이혜지, 강영신 (2017). 상실에 따른 애도 반응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영적 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623-643.
- 장성금, 유영권 (2012). 애도를 위한 의례로서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 19(2), 381-404.
- 최상진, 최인재 (2002).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55-71.
- 황미현 (1999). 아동의 사별경험 유무에 따른 동작성 가족화(K-F-D)검사의 인물상의 특징, 활동내용, 스타일 반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2007).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Boston: Pearson/A&B.
- Bogensperger, J., & Lieger-Schuster, B. (2014). Losing a child: Finding meaning in bereavement.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5(1), 1-10.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 Calhoun, L. G., Tedeschi, R. G., Cann, A., & Hanks, E. A. (2010). Positive outcomes following bereavement: Paths to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 Belgica*, 50(1-2), 125-143.
- Carver, K., Hayslip, B., Gilley, A., & Watts, J. (2014). Influences on grief among parentally bereaved adult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9(2), 105-116.
- Currier, J. M., Holland, J. M., & Neimeyer, R. A. (2012). Prolonged grief symptoms and growth in the first two years of bereavement. *Traumatology*, 18(4), 65-71.
- Davis, C. G., Wohl, M. J. A., & Verberg, N. (2007). Profiles of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an unjust loss. *Death Studies*, 31(8), 693-712.
- Field, N. P., Gao, B., & Paderna, L. (2005). Continuing bonds in bereavement: An attachment theory based perspective. *Death Studies*, 29(4), 277-299.
- Foster, T. L., Gilmer, M. J., Davies, B., Dietrich, M. S., Barrera, M., Fairclough, D., ... Gerhardt, C. A. (2011). Comparisons of continuing bonds reported by parents and siblings after a child's death from cancer. *Death Studies*, 35(5), 420-440.
- Gillies, J., & Neimeyer, R. A. (2006). Loss, grief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Toward a 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m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1), 31-65.
- Gray, L. B., Weller, R. A., Fristad, M., & Weller, E. B. (2011).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wo months after the death of a par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5(1-3), 277-283.
- Hamilton, N. G.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 1988년 출판)
- Holdsworth, C. (2007). Intergenerational interdependencies: Mothers and daughters in comparative perspectiv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0(1), 59-69.
- Holland, J. M., & Neimeyer, R. A. (2011). Separation and traumatic distress in prolonged grief: The role of cause of death and relationship to the deceased.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3(2), 254-263.
- Kastenbaum, R. (2007). *Death, Society, and Human*

- Experience*. Boston, MA: Pearson/Allyand Bacon.
- Klass, D. (1988). *Parental Grief: Solace and Resolution*. New York: Springer.
- Leopold, T., & Lechnerm C. M. (2015). Parents' death and adult well-being: Gender, age, and adaptation to filial berea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3), 747-760.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Linley, P. A., & Joseph, S. (2011). Meaning in life an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Loss and Traum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16(2), 150-159.
- Marks, N., Jun, H., & Song, J. (2007). Death of parents and adult psychological well-being: A prospective U.S.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28(12), 1611-1638.
- Marwit, S. J., & Klass, D. (1996). Grief and the role of inner representation of the deceased. In D. Klass, P. R. Silverman, & S. L. Nickman (Eds.), *Continuing bonds: New understandings of grief* (pp. 297-30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Mireault, G. C., Thomas, T., & Bearor, K. (2002). Maternal identity among motherless mothers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their firstbor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3), 287-297.
- Murphy, S. A., Johnson, L. C., & Logan, J. (2002). Finding meaning in a child's violent death: A five-year prospective analysis of parents' personal narratives and empirical data. *Death Studies*, 27(5), 381-404.
- Neimeyer, R. A. (2000).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meaning: Grief therapy and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Death Studies*, 24(6), 541-558.
- Notman, M. T. (2006). Mothers and daughters as adults. *Psychoanalytic Inquiry*, 26(1), 137-153.
- Palladino-Schultheiss, D. & Blustein, D (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2), 159-166.
- Pill, C. J., & Zabin, J. L. (1997). Lifelong legacy of early maternal loss: A women's group.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6(3), 179-195.
- Prigerson, H. G., Vanderwerker, L. C., & Maciejewski, P. K. (2008). A case for inclusion of prolonged grief disorder in DSM-V. In M. Stroebe, R. Hansson, H. Schut, & W. Stroebe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pp. 165-18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we, B., & Harman, B. A. (2014). Motherless mothers: Maternally bereaved women in their everyday roles as mothers. *Journal of Family Studies*, 20(1), 28-38.
- Russac, R. J., Steighner, N. S., & Canto, A. I. (2002). Grief work versus continuing bonds: A call for paradigm integration or replacement? *Death Studies*, 26(6), 463-478.
- Schultz, L. E. (2007). The influence of maternal loss on young women's experience of identity development in emerging adulthood. *Death Studies*, 31(1), 17-43.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Wolgast, M., Lundh, L., & Viborg, G. (2011). Cognitive reappraisal and acceptance: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tw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12), 858-866.
- Worden, J. W. (2009). 가족을 잃은 아이의 슬픔 (전석균, 임승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1996년 출판)
- Yalom, I. D., & Lieberman, M. A. (1991). Bereavement and 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Psychiatry, 54*(4), 334-345.
- Zaiger, N. (1985). Women and bereavement. *Women and Therapy, 4*(4), 33-43.
- 1차원고접수 : 2019. 08. 20.  
2차원고접수 : 2019. 12. 25.  
최종게재결정 : 2020. 02. 06.

## A Qualitative Study of Grief Process and Psychological Growth of Korean Female Adults Who Bereaved Mother during Adolescence

Hye-Ji Lee

Young-Shin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specifically examine the grief process and psychological growth of Korean female adults who bereaved their mother during adolescence. For this, the grounded theory, a qualitative methodology, was applied, and the final 16 interview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Strauss and Corbin's analysis process, 241 concepts, 76 subcategories, and 15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open coding. In a paradigm model of the axis coding, the causal conditions were 'facing mother's death' and 'feelings right after death'. The phenomena were three, including 'the daily sorrows and pains caused by bereavement'. Contextual conditions were four, including 'emotional change depending on time passed'. Intervening conditions were three, including 'receiving the comfort and assistance from support system' and 'obstacles to grief'.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personal grief rituals' and 'coming up with coping strategies'. The consequences was 'psychological growth'. The process analysis of the axis coding resulted in 6 stages: 1) Confusion, 2) Enduring, 3) Confronting and constantly connecting, 4) Reappraisal, 5) Recovery, 6) Growth. In selective coding, the core category that reflects the results from open and axis codings was named 'Planting mom and nurturing myself'. The participants' grief and psychological growth experiences in the selective coding were analyzed at the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social levels, and a conditional matrix for the level analysis was established. Discussions on the findings were described,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s in conclus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bereavement during adolescence, female adults, grief process, psychological growth, grounded theory